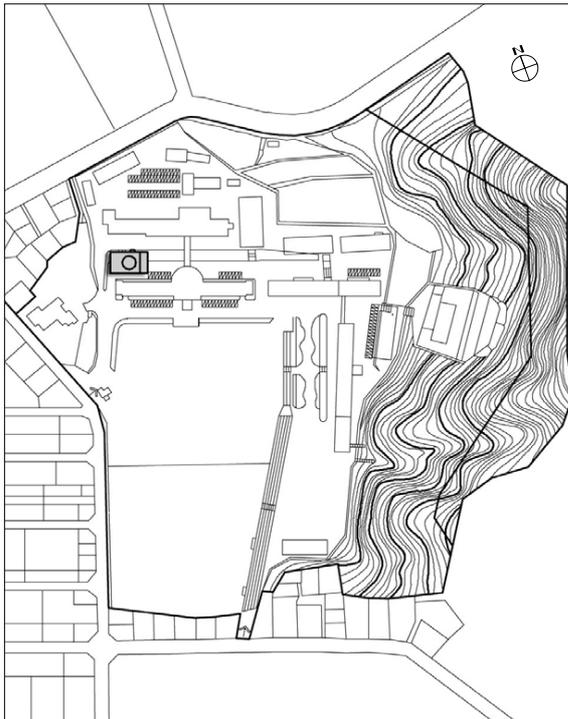


# 성남 고등학교 정보 도서관

## SungNam HighSchool Digital Library



배지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75-1
-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 용도**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 증축면적** 1,106.23㎡
- 구조** 철골조
- 외부마감** 로이유리(low-e glass,그린), 페어 강화 간유리
- 내부마감** 바닥/ 고흥석(회색), Access Floor, 테라조판  
벽/ 방화석고보드, 방화 망입유리  
난간, 계단/ 망입유리  
지붕/ 아스팔트 싱글기와, 아스팔트 루핑,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이음매 치옴몰 마감)
- 시공** 금성 종합 건설 주식회사
- 감리** 양가주망 건축사 사무소
- 설계담당** 임주희, 천민정



1938년에 김석원, 원운수 두 분이 만든 서울 성남 고등학교는 강남에서 유일하게 구(舊) 시흥군 지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였다. 지금은 강남구가 강남으로 대접받지만 과거에는 이 일대가 모두 시흥군이었고 강남이었으며, 안양읍이 그 중심이었다.

설립이념은 설립자 두 분이 평소 이순신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를 존경하여 “병들어 죽지 말고, 나라 위해 일하다 죽자”라는 이념 아래 확고한 애국정신을 교육시켰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울 성남고등학교의 정보도서관에 대한 건축 상담을 시작할 무렵이던 2003년, 설립자의 한사람인 김석원 장군이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과거가 드러나 이래저래 시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김장군은 6.25 전쟁 시 포항전투에서 학도병을 이끌고 방어하여 낙동강 방어전에서 승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군인으로서 인기에 방영된 적이 있던

드라마 ‘아인시대’에서도 김두환과 방어전에 참가한 것이 방영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활약 이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보다. 지금도 교육 이념은 큰 강의 강물같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필자도 ROTC로서 이와 같은 교육이념의 영향을 받아 난중일기(이순신), 징비록(유성룡), 손자병법 등을 읽고 또 읽어 바보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였다. 그 중 난중일기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부모님을 걱정하고 효도하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과 늘 활쓰기를 통해 육체를 연마하고, 평소 상공업(전쟁 시 군수산업인)을 장려하고 보살펴 만일을 대비하던 이순신 장군의 안목 깊은 전략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설립자의 동상이 있는 곳에 1차로 계획 되었고, 배치도가 나오자 곧 동

상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동상을 이전한다고 역사에서까지 과거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상을 보존함으로써 시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다. 동상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결과이다.

2차 위치는 구 강당 터가 거론되다가 좁아서 현 위치가 검토되었다. 이 자리는 본관과 후관이 있는 가운데로서 샌드위치 형이다. 교사들은 이 위치를 답답하다고 반대해 심했지만 건축가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설득하셨다.

90년대 초, 필자는 친척과 조카의 졸업식을 위해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이 학교의 여러 교육시설들이 불쾌하다고 편찬을 받았다. 이후 교육시설 개혁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그 후 국회 어린이집



설계(2000년)를 통해 고구려 무덤의 천정 디자인을 참고로 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작품을 시도했다.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담당과 관내 몇 군데 학교를 답사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다. 현 위치는 경사지로 일부 석축이 있는 곳이다. 경사지를 수평으로 밀고 건축물을 앉히는 것이 관례인데, 이러한 토목공사(형질변경)로 전 국토가 자연스러움을 잃고 파괴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스위스 주택 경사지 배치, 홍콩 APT 경사지 배치 참고) 경사지를 살리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석축을 조연으로 살려 시간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외관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사장이 요구하셨는데, 이 주문이 제일 어려워 피로티로 답답함을 제거하고 다소 경사 지붕을 만들고 지붕에 채광창을 돌출시켰다. 걸치레 없

는 소박한 디자인으로 100년 이상 사용함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는 보통 복도의 연속이다. 그래서 복도 없는 건축을 생각하였고, 단면을 계단 따라 공간을 만들었다. 복도는 학교에서 15~2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은 8~16개의 교실을 복도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권위적 사회 시스템과 건축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경량으로 경쾌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늘 바람으로 품고 있는 건축이다. 그래서 4층 코너의 기둥을 없애고 지붕을 스탠드 형으로 경쾌감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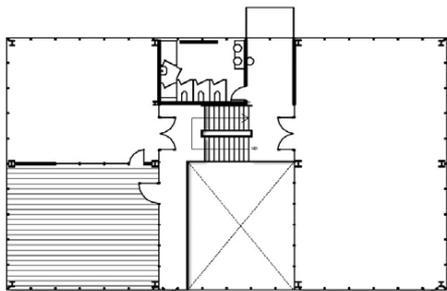
계단실과 엔트런스 홀 그리고 안뜰을 일체로 바닥에서 지붕까지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실내의 공간을 2층에서 4층까지 연장시켰고, 4층 높이의 공간에 둘러 싸여 답답하게만 느껴지기 쉬운 안뜰공간을 생동감 있고 활달한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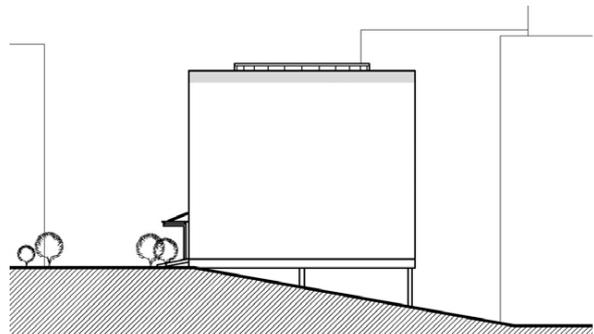
대형 공연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공간감을 도서관 엔트런스 홀에서 제공하고 있다. 실내건축의 각 부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교감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름이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자원 식민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낮에 또는 하절기 피크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으로 조명과 난방을 유지하는 건축은 곧 우리가 자원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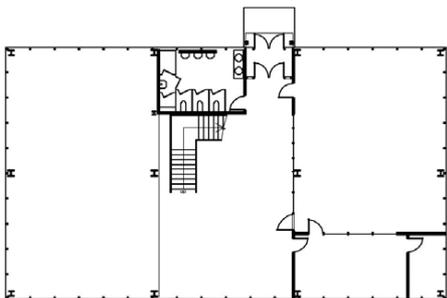
단열유리의 사용으로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쉽사리 더워지지 않음으로서 냉방 시 차가운 기운을 빼앗기지 않고, 겨울에는 겨울 햇살의 따뜻함만이 들어오고, 또 따뜻한 기운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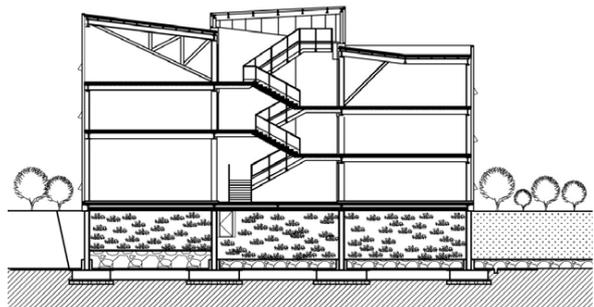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우측면도



2층 평면도



단면도

절약이 된다. 그러나 한 여름철에는 그물막을 덮는 수고가 따른다. 노력 없이 에너지 절약은 없는 것이다.

4각형 위 8각형 상부에 원형을 사용하는 수법을 다소 사용하였다. 고구려 우물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13일의 달을 살짝 표현하였는데, 흥은동 주택 개구부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13일의 달 모양은 미완을 뜻하고 겸손함을 뜻한다. 팍 찬 것(15일) 보다는 부족함이 희망적이다.

내부에 사용된 방화석고 보드는 핑크색이다. 이 색을 보면 나는 매우 생기를 느낀다. 계단 벽을 인디안 핑크로 하였고, 대문에 적색, 현관주변에 노란색을 일부 사용하여 생기를 주었다. 안뜰 바닥은 검정색으로 안정감을 주고, 모두 모이면 오방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투명 경영이 학교 목표라 모두 유리가 사용되었으며, 전용면적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단열 유리가 사용되었고 필자의 기호에

따라 무색유리를 선호한다. 칼라유리는 주변에 반사되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내 공간에는 망입 방화유리가 열린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 계단부위에는 도출 천정으로 처리 되었다. 중간에 음향을 걱정하였으나 양호한 편이다. 외국에 비해 구조를 싸서 안보이게 하는 걸치레 상태에 있는 것을 늘 안쓰럽게 생각한다.

이정도의 일은 후배들이 해야 하는데 필자가 하게 되어 미안할 따름이다. 그래선지 교육시설이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비가 쏟아져도 현장에 다니는 열정을 담았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정보도서관으로 운영되자면 3~4억원의 장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예산이 문제다. 한편에서는 국, 영, 수를 강조하는 고교 경영의 타성적 편리함 때문에 일부를 지습실로 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모든 것은 학교가 결정할 일이다.

설계 후 시공까지 하는 후배들도 있다.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다. 필자는 시공은 못하고 시공감리는 열심히 한다. 시공은 시공자가 스스로 잘하게끔 유도한다. 한 민족은 신이 나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에서 자상하고 성실한 시공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금성종합건설주식회사 김택겸 전무님과 장기석 현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구가 유명한 학교에서 건축도 인정받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

